

2019년 2월 8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미 언론, “3월 1일 이전 미·중 정상회담은 힘들다”

### 미 증시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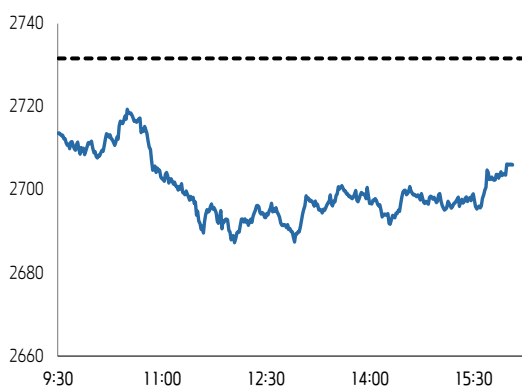
미 증시는 유럽 경기 둔화 우려 및 기업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 이후 래리 커들로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미·중 정상회담이 3월 1일 이전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낙폭 확대되며 마감(다우 -0.87%, 나스닥 -1.18%, S&P500 -0.94%, 러셀 2000 -0.81%)

미 증시는 ①EU 경기둔화 우려 ②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먼저 경기둔화 이슈는 EU 집행위가 유로존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자 부각. EU는 2019년 유로존 GDP 성장률(1.9%→1.3%)과 EU GDP 성장률(1.9%→1.5%) 모두 하향 조정. 원인으로 독일의 자동차 생산 둔화, 프랑스의 사회적 긴장, 이탈리아의 예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내부요인을 언급. 더불어 2019년 인플레이도 유로존(1.8%→1.4%), EU(2.0%→1.6%) 모두 하향 조정. 관련 소식이 전해졌으나 유로화의 약세는 제한.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한편, 11일부터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짐. 지난 1월 18일 “중국과 무역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라고 언급한 점과 다른 모습. 이런 가운데 3월 1일 이전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특히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다는 점은 관련 이슈가 협상의 난항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러나, 지난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말에 시진핑 주석과 해외에서 만날 계획이다” 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은 남아 있음. 더 나아가 3월 1일 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휴전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11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03.42	-0.00	홍콩항셱	27,990.21	휴장
KOSDAQ	728.79	+1.66	영국	7,093.58	-1.11
DOW	25,169.53	-0.87	독일	11,022.02	-2.67
NASDAQ	7,288.35	-1.18	프랑스	4,985.56	-1.84
S&P 500	2,706.05	-0.94	스페인	8,938.30	-1.79
상하이종합	2,618.23	휴장	그리스	645.16	-1.41
일본	20,751.28	-0.59	이탈리아	19,478.32	-2.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실적 호전 업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트위터(-9.84%)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수 감소 및 향후 가이드언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하락 했다. 페이스북(-2.41%), 알파벳(-1.51%), 넷플릭스(-2.12%), 아마존(-1.58%) 등 FANG 기업들도 동반 하락 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크라이슬러(-12.25%)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GM(-3.16%), 포드(-4.70%)도 동반 하락 했다. IT서비스업체인 알리안스 데이터(-9.83%)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언스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바이오젠(-7.36%)은 특허분쟁에서 실패할 것으로 전망되자 급락 했다. 암젠(-3.41%), 길리어드사이언스(-2.14%) 등 여파 바이오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치폴레 멕시칸그릴(+11.35%)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의류업체인 한스브랜드(+20.17%)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제품 포장업체인 Sealed Air(+9.17%)도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했다. 소형 은행인 BB&T(+3.98%)과 선트러스트 은행(+10.18%)은 합병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35%	대형 가치주 ETF(IVE)	-0.90%
에너지섹터 ETF(OIH)	-4.01%	중형 가치주 ETF(IWS)	-0.34%
소매업체 ETF(XRT)	-0.67%	소형 가치주 ETF(IWN)	-0.38%
금융섹터 ETF(XLF)	-1.00%	대형 성장주 ETF(VUG)	-1.03%
기술섹터 ETF(XLK)	-1.37%	중형 성장주 ETF(IWP)	-0.5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85%	소형 성장주 ETF(IWO)	-1.15%
인터넷업체 ETF(FDN)	-1.75%	배당주 ETF(DVY)	-0.53%
리츠업체 ETF(XLRE)	+0.7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3%
주택건설업체 ETF(XHB)	+0.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6%
바이오섹터 ETF(IBB)	-2.50%	미국 국채 ETF(IEF)	+0.33%
헬스케어 ETF(XLV)	-1.10%	하이일드 ETF(JNK)	-0.42%
곡물 ETF(DBA)	-0.99%	물가연동채 ETF(TIP)	+0.15%
반도체 ETF(SMH)	-2.11%	Long/short ETF(BTAL)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7.21	-2.13%	-0.76%	+1.64%
소재	330.47	-1.39%	-1.05%	+1.40%
산업재	613.43	-0.75%	+1.60%	+8.79%
경기소비재	847.81	-0.87%	-1.58%	+2.08%
필수소비재	549.64	-0.07%	+0.31%	+4.60%
헬스케어	1,038.49	-1.06%	-0.90%	+2.67%
금융	427.88	-0.94%	-0.47%	+5.51%
IT	1,185.04	-1.44%	+1.88%	+6.58%
커뮤니케이션	151.20	-1.03%	-1.01%	+2.87%
유틸리티	281.00	+1.27%	+1.20%	+4.98%
부동산	214.29	+0.80%	+0.62%	+9.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지수 ETF 는 1.83% MSCI 신흥지수 ETF 도 1.00%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822 계약)에도 불구하고 1.25pt 하락한 284.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하락 요인 중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특히 EU 집행위도 유로존 경기 둔화의 원인을 내부요인에 서 찾았다는 점은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연말 이후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반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미·중간 추가 관세가 부가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을 발표 했다는 점, 3 월 1 일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휴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이를 빌미로 차익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EU 및 유로존 GDP 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5.3 만건) 보다 감소한 23.4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예상치(22 만건) 보다는 증가했다.

12 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1.3%)보다는 양호했으나, 시장 전망치(mom +0.8%) 보다는 부진했다. 여전히 자동차 산업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8 년 11 월 대비 유로존 GDP 성장률에 대해 하향 조정 했다(2019 년 1.9%→1.3%, 2020 년 1.7%→1.6%). 더불어 EU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 했다(2019 년 1.9%→1.5%, 2020 년 1.8%→1.7%).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는 EU 집행위가 유로존 성장을 하향 조정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유럽 경기 침체 및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낙폭이 확대되며 마감 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유로화와 파운드화, 엔화 변화 여파로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유로화는 EU 집행위가 2019 년 GDP 성장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약세폭은 제한되었다. 파운드화는 옹커 EU 의장이 “안전장치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옹커 의장의 발언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엔화는 무역분쟁 및 경기 둔화 이슈가 재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영향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30 년물 국제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1 배) 보다 낮은 2.27 배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 했으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64	-2.54	-2.14	Dollar Index	96.545	+0.16	+1.01
브렌트유	61.63	-1.69	+1.30	EUR/USD	1.134	-0.19	-0.94
금	1,314.20	-0.02	-0.83	USD/JPY	109.84	-0.12	+0.87
은	15.713	+0.08	-2.23	GBP/USD	1.2950	+0.14	-1.21
알루미늄	1,894.00	-0.68	-0.84	USD/CHF	1.0024	+0.03	+0.82
전기동	6,246.00	-0.53	+1.25	AUD/USD	0.7102	-0.04	-2.35
아연	2,731.00	+1.00	+0.44	USD/CAD	1.3305	+0.69	+1.37
옥수수	376.50	-0.92	0.00	USD/BRL	3.7176	+0.45	+1.93
밀	513.25	-2.42	-0.63	USD/CNH	6.7841	+0.09	+1.11
대두	913.25	-0.92	-0.22	USD/KRW	1124.10	+0.47	+0.57
커피	104.30	-1.14	-1.51	USD/KRW NDF1M	1123.93	+0.28	+1.12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55	-3.92	+2.61	스페인	1.239	-1.60	+4.50
한국	1.992	+0.90	-2.30	포르투갈	1.655	-0.40	+3.80
일본	-0.008	+0.50	-1.30	그리스	3.984	+9.90	+13.40
독일	0.115	-4.70	-3.40	이탈리아	2.948	+9.10	+36.10